

사랑의 메아리

스페셜 에디션 · 2016.06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www.churchinneed.or.kr



ACN과 함께 자비를 실천합시다! 전 세계에 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ACN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영상 메시지를 전해오셨습니다.

“부활 제8일인 하느님 자비주일에, 전 세계의 모든 마을과 교구와 공동체에서 선의를 가진 모든 형제자매들이 자비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동시에 서로의 자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염려해 주며 사랑을 보여주고 오랫동안 계속해온 전쟁에서 싸움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는 온 세계에서 자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가 준비한 프로젝트의 브로슈어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ACN에 맡깁니다……. 그리고 ACN의 설립자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님이 물려주신 그 정신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신부님은 설립 당시에 이렇게 온정, 자선, 호의, 사랑, 자비 행위들을 독려하는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ACN과 함께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인 자비활동, 즉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결핍들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가길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비를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비는 바로 하느님의 온화한 손길입니다.”

전체 영상 보기: www.acnmercy.org/ko



하느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퍼뜨리기를

소외된 곳을 찾아서, 길 위의 노숙인들을 방문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베렌프리트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곤 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교황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를 갈구하는 외침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께 가난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가운데 자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우리의 프로젝트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4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한 집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으며 살아가고 있다.

자비의 사도

보고타의 노숙인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손길

보고타 성모교회는 각각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여러 영적 공동체들의 본거지입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Bogota)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이자 비오(Pio) 신부를 따르는 이들”이라는 그리스도 평신도 공동체는 도시의 거리에서 구걸하는 버림받은 노숙자들을 찾아내어 건강과 심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보고타의 노숙자 수는 22,000명에서 38,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갈 데 없는 이들은 거리나 다리 밑, 공원 벤치, 상점 문간이나 출입구 옆의 귀퉁이, 또는 쇼핑 물의 지붕있는 통로 등 온 도시를 거처삼아 생활합니다. 골판지 상자가 곧 집인 이들은 자주 먹을 것과 술을 구걸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생활로 이르게 된 데에는 약물중독이 주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노숙자들 가운데 절반은 아직 미성년자들입니다. 공동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인 자비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샤워나 밤을 나기 위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일단 그들을 위한 ‘길 위의 집’이 지어지고 나면 수녀님들은 그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위생과 의료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온기와 사랑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던 이들은 하느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체험하고 다시 삶에 대처할 힘과 용기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봉사자들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불행에서 벗어날 길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게 하는 헌신적인 지원, 이것이 바로 비결로서 그들이 지으려 계획하고 있는 ‘중간 단계의 거처’인 ‘길 위의 집’에서 이 노숙자들에게 제공하기를 바라는 여정의 자양분입니다. 그 쉼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집’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최초의 쉼터가 될 이곳을 건립할 수 있도록 ACN에 19,000유로(한화 2,500만 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비의 집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필요

자비가 필요한 곳, 인도의 이름 없는 이들

인도에서는 밤이면 별거벗은 채 거리를 헤매는 이름 없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소녀 및 여성 정신장애자들입니다. 때로는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지기도 하는데, 야밤에 차에 태워져 도시의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 자그달푸르(Jagdarpur) 교구의 ‘복되신 성체공경 수녀회’ 수녀님들은 이들에게서 ‘가장 작은이’의 모습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수녀님들은 거리에서 이들을 데려와 입히고 먹이며,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거처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소박하지만 빛으로 가득한 정갈한 그곳에서 수녀님들은 버림받은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며 돌보고 계십니다. 지난 몇 년간 수녀님들은 거리에서 이러한 정신장애 여성들을 80명이나 구조하셨습니다. 자그달푸르에서 정신장애 여성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로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현재는 35명의 여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곳을 찾는 여성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어 공간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증축에는 45,000유로(한화 5,94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수녀님들에게는 너무 큰 액수입니다. 수녀님들은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구, 찬장, 침대, 기도하기 위한 십자가 등 소박한 살림살이를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이름 없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아이들

자비의 장소

매일 500명을 먹이는 레바논의 무료급식소

시리아의 알레포, 흠스, 다마스쿠스에서 온 수천 명의 난민들이 레바논의 자흘레 마을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많은 이들이 옷가지만 겨우 지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도착합니다. 레바논 교회는 가난한 처지에서도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벨리트 그리스 가톨릭교회의 이삼 다르위시(Issam Darwish) 대주교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조를 처음으로 제안한 기구는 ACN이 있습니다. ACN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홀로 이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로써 시리아에서 부모와 가족이 살해당한 채 인근의 자흘레로 도망쳐 간신히 목숨을 건진 어린이들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의지할 가족이 하나도 없는 천애고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흘레 마을의 레바논 주민들과 전쟁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곤궁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장을 잃은 사람들, 일거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기본적인 생필품이 부족하여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행하셨던 대로 곤궁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 군중이 가없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마태 15,32)

이삼 대주교님은 먹을 것이 없는 이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여셨습니다. 이곳에서 어린아이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가족, 난민 등 심신이 고달픈 곤궁한 사람들 500명을 위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구의 사제 한 분과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영적 결핍을 돌보기 위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대주교님은 자흘레가 부근의 시리아에서 진행되는 지옥과도 같은 증오와 폭력에 뒤지지 않는 자비와 사랑을 전파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대주교님이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하루 일인당 2유로, 즉 1,000유로(한화 130만 원)가 필요합니다. 주교님은 여러분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며 성모마리아께 의탁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자흘레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자비의 열매

중앙아프리카의 평화와 화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화해의 표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도시와 마을을 장악했던 무장 단체들이 이제는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증오와 탐욕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겪은 상처는 실로 깊기만 합니다. 수도 방기(Bangui)의 디외도네 자팔라잉가(Dieudonné Nzapalainga) 대주교님께서 최근 편지에 썼듯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반년 전 진정한 신앙의 행위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교황님은 평화의 사절로서 가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나라에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정신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정신을 계속 살리기 위해 사제와 평신도 사목 활동가들 648명을 불러 모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회의와 세미나를 할 것이며, 화해의 활동을 해나갈 힘을 사랑의 원천에서 끌어내기 위해 주교님과 함께 장엄미사를 드릴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요청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아픈 이들, 버림받고 잊힌 이들, 정치인들과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의 얼굴을 보며, 상처를 회복하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해의 물고를 트려면 9,000유로(한화 1,170만 원)가 필요한데 그곳의 교회는 여력이 없으므로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화해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용서를 설교하시며
화해를 모색하고 계시는
자팔라잉가 대주교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십시오.”

2016년 6월 17일, ACN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자비를 통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당부하시는 교황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교황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전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베렌프리트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ACN과 함께 전 세계에 자비 활동을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말입니다. 거대한 물줄기처럼 다른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동참시켜야 합니다. 단지 물방울 하나로 자비의 힘을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자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중동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폭력과 증오가 만연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추방, 테러,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으며, 인도와 중국과 남미에서는 고통과 빈곤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이러한 갈등 지역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부자 나라들의 해안가를 떠돌다 좌초하거나 높은 보호벽에 가로막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인류는 갈가리 찢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황님과 함께 이 세상에 더 많은 희망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으로 내세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시며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지난 자비 주일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자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이는 표징, 즉 자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랑을 표출함으로써 계속해서 써야 하는 미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자비의 복음을 삶으로 써가며 오늘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영적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과업을 수행합니다.” 설립자 베렌프리트 신부님이 우리 ACN 가족들에게 수십 년 동안 해 오신 다음과 같은 호소는 ACN이 자비 행위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CN이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적 캠페인은 구체적 활동을 통해 단지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찾아가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 우리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흔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이들과 냉담 중인 사람들조차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일상에서 활동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자비는 머리모만 생각하는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랑의 메아리 스페셜 에디션은 그러한 의식을 깨우는 첫 알림이고, 새로운 시작으로 계획되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ACN 자비 캠페인 웹사이트 www.acnmercy.org/ko에서는 여러분의 커다란 지원 덕분에 가능해진 활동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상세하게 업데이트 됩니다.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동영상을 보시고 주위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황님 말씀대로 우리는 또한 서로 ‘다른 이들의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자비야말로 “사랑하는 하느님의 온화한 손길”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요하네스 헤르만
국제 ACN 대표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페이스북: 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교황청
재단

